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홍순기

행정사무관
국립환경연구원 연구부 교육과

지금부터 약 이십 년 전 비영리사단법인 허가업무를 취급해 본 적이 있었다. 한번은 일상 습관대로 접수된 서류를 나름대로 꼼꼼히 검토하여 전화 또는 문서로서 보완하도록 하였다. 그 법인의 사무국장은 거기에 맞추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라고 말이나 문서 한 장으로 요구한 사항을 몸으로 움직여야 했기에 몹시 힘들었나 보다.

우여곡절 끝에 허가 후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진 것 같지 않은데 한마디 한다. “홍형! 내가 홍형보다는 환경밥을 훨씬 더 먹었소” 오십셋 정도 되어 보였고 내 나이 서른넷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民願人 그와 다룰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마디했다.

“나원 참 택시기사들로부터 기름밥 소리는 들어보았어도 환경밥 소리는 처음 듣네요” 이런 일로 해서 그분과 지금까지도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같이할 정도 가까워 졌는데 그분은 자제 분을 둘씩이나 신부님으로 만들만큼 독실한 천주교인이며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분 같았다.

칠십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환경밥을 잡숫고 계시면서도 “힘들지 않으세요” 인사차 물으면 “내 나이에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니 즐겁다는 말을 암시한다. 그런 저런 일로 해서 나는 하나의 생활 속에 화두를 얻었다.

“환경밥” 작년 봄에 만났던 스승같은 벗 禪僧 정담이 내게 한말이 생각난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말을 글로 쓰기 어려운데 말과 글을 마음으로 깨우쳐 실천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환경밥의 화두는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行住坐臥 語默動靜 깨우쳐 보려고 한다. 佛家에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

다.

雪峰 和尚(선원에서 십년 이상 참선수행을 하고 계율을 잘 지켜 제자를 둘 자격이 있는 승려)이 젊은 시절 道伴과 같이 雲水行脚을 떠났다. 피곤한 旅程에서 도반이 냇가에 채소한 올이 떠내려 오는 것을 집어들고 상류에 절이 있을지 모르겠네 우리 거기서 여름 한철 공부해볼까?”

그러나 설봉화상은 말했다. “넌 뭘 모르는 놈이다 채소한 올 다룰 줄 모르는 절에서 뭘 배울게 있느냐”며 그냥 가자고 했다. 이때 웬 행자승(예비승려)한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혹시 채소한 올이 떠내려가는 것을 봤습니까?” 하고 물었다.

설봉화상은 도반의 손을 가르키며 “저기 있네” 라고 답하면서 여기서 절이 얼마나 되냐고 묻고 우리를 그 곳으로 안내하라면 따라갔다.

이 일화는 불교의 雪峰流菜라는 고사이다. 좀 과장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할 정도의 실화가 있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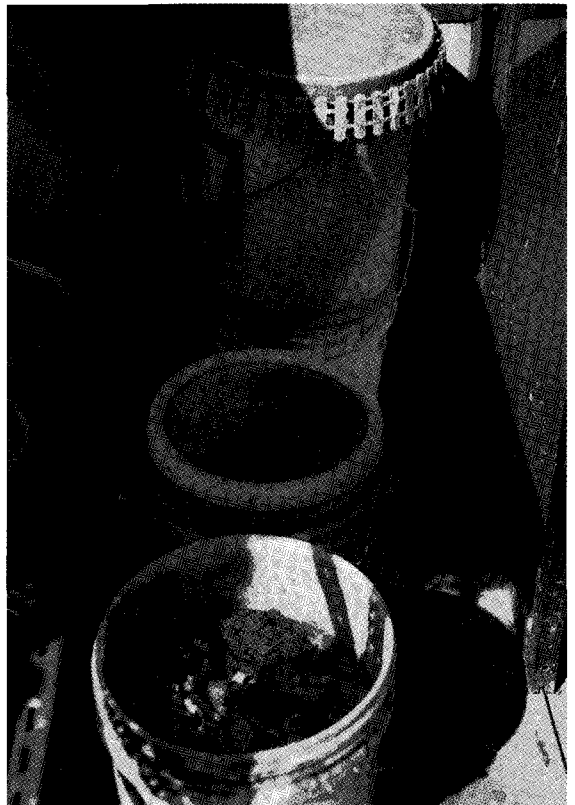
나의 취미는 사찰이나 한옥의 기둥에 붙어있는 글들을 나뉠대로 보고 생각하는 취미가 있는데 그 글들은 덕이 높은 승려나 유생들이 자신들의 깨우침을 글로 표현한 것들이 주로 많다. 글귀가 좋아서 다니다 우연히 절에서 이년 여 만에 법회를 마치고 나오는 강 사장을 만나게 되어 들은 얘기이다.

충청남도 유명사찰에서 일주일간 참선수행을 했는데 대중의 공양(식사)방법은 이렇하다. 주로 바루(鉢于)공양이라 하여 네 개의 식기로 밥, 국, 찬, 물을 먹을 만큼 각각 담아서 먹은 후 김치 한 조각을 남겨 바루의 물 반 즈음

을 가지고 김치조각을 수세미삼아 그릇을 깨끗이 닦아 마시고 남은 물로 행군다음 지도스님 앞에 있는 큰그릇에 물을 붓는다.

지도스님은 그물에서 고춧가루나 밤풀조각이 발견되면 그물을 공양에 참여한 대중에게 다시 나누어 마시도록 하는데 어느 여신도가 그 물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서 강 사장 앞에 와서 아직도 나누어 줄 사람이 많이 남았는데도 그물을 다른 사람 보다 더 많이 쏟아 붓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눈을 흘기면서 노려보았는데 그 여신도가 오후 참선시간에 행방불명이 되어 오후 내내 찾아보니 높은 산 정상 부근 암자에 혼



4개의 페인트 통에 음식물찌꺼기 등 부식 가능한 쓰레기를 모은다.

자 올라가 있더라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사찰 柱聯을 거꾸로 외우고 바로 해독 할 지식보다도 참선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모기가 아무리 물어도 미동도 하지 않아 모기가 피를 실컷 빨아먹고 날지 못해 바둥거릴지라도 나누어주다 남은 뭍의 물까지도 기꺼이 전부 마셔 버릴 수 있는 마음만 못하다고 생각되었다.

남을 자기보다 더 생각할 수 있는 利他行은 보살을 이루고, 견줄 때 없는 지혜는 부처를 이룬다던가?

바루 공양의 별칙에 관한 종교적 이유는 나중에 알았는데 생전에 인간이 음식을 낭비하고 배고픈 사람을 알고서도 모른 채 하면 죽어서 아귀가 되는데 뱀은 축구경기장만하고 목구멍은 바늘 끝 보다 작아 항상 먹어도 배가 고프는데 이런 아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루 공양에서 남은 물인데 만약 고춧가루나 밥알찌꺼기가 목에 걸리면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한다.

가히 죽어서 아귀지옥에 빠진 중생들까지도 배려하는 바루 공양의 정신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본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론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안되니까 나도 환경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무언가 실천해 보고자 했다.

외식 때 실천 해보려니 남들이 유별한다고 할까봐 못하고 가정에서 권

력순위(?)가 다섯 식구 중 오번 서열인 나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실천해 보았다. 우리 집은 지하까지 삼층다세대 주택이다. 맨 위층에 이십 평 정도를 쓰고 있지만 집주인이랍시고 옥상은 내가 쓴다.

그 옥상에 십년 전 집을 짓고 처음 한 일이 벽돌을 여섯 장 높이로 두 평정도 쌓고 비닐을 깐 다음 흙으로 채워서 받을 만들었다. 그 다음 알미늄 샷시로 두 평남짓 藺은실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다가 집 무너지겠다는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의 상당한 만류가 있었다. 게다가 분재도 있고 한술 더떠 수석까지 있으니 이해는 가지만 그 당시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안 듣기로 한 귀에는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던가? 집 앞 동사무소직원까지도 말리는 것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식탁 옆 냉장고문에 식사할 때 잘 볼 수 있도록 이런 글귀



건물옥상에 2평정도 받을 만들어 겨우내는 분재등을 월동시키거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초봄 사이에 밭아서겨 일찍부터 농사(?)를 준비한다.

를 붙여 놓았다.” 이밥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 어렵네, 내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원래 스님들의 공양계송을 대충 고쳐놓은 것이다. 아들과 딸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식사할 때, 친인척들이 왔을 때 부끄럽다고 아내와 아이 들은 떼고 나는 붙이기를 수십 차례는 훨씬 넘고 죽히 백 번이 넘으면 넘었지 그 이하는 아니었다.

家長으로서 권위가 실추되면서까지 큰 소리 못치는 것은 크게 아쉬운 것이 있어서이다. 그것이 바로 음식물쓰레기 모으는 것인데 따로 모아 달라고 老母님과 아내에게 사정했지만 그게 잘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싱크대 주변에서 훔치듯 모았는데 그러다가 老母님께 자주 이런 편잔을 듣는다.

“사내들이 부엌에 얼쩡거리는 것은 세상에 못 볼 꼴”이라고 나도 답으로 한마디 하고 싶었다. “내가 아들이기 망정이지 임 서방(사위)이라면요?”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노모님이라도 유일한 협조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럭저럭 음식물쓰레기는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모으는 통은 우리집 앞에 있는 동사무소 옆 재활용쓰레기장에 가끔 버려지는 플라스틱 페인트 통인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때는 부끄러워서 눈치를 보아가며 한달여 만에 그 통을 여섯 개정도 주워서 두 개는 다른 용도로 쓰고 네 개는 음

식물쓰레기는 물론 썩는 쓰레기를 모으는데 충분했다. 통에 모아놓은 거의 부식된 쓰레기는 옥상 밭에 묻어 거름으로 쓰니 地力이 좋아 그런지 벌레가 끼지 않아 농약 쓸 일 없어 더욱 좋다.

깻잎, 상추, 배추, 무, 고추 등 필요한 양의 채소는 물론 몇 집에 인심 쓸 만큼 수시로 수확한다. 이러면서도 못 푼 숙제가 있다. 우리 집에는 매일 아들 친구들이 한방 가득하다. 시끄럽고 해서 무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나의 천이백도에 들어갈 육신을 날라 줄 놈이 있을 것인데 마음놓고 팔시 할 수만은 없는 놈들이다. 그들과 가족들이 먹다 남은 찬밥 문제인데 쌀이 흔하다고는 하지만 차마 어찌 북녘동포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굶주리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데 거름통에 버리라.

그래서 둔한 머리 쓴 것이 남은 밥을 끓여 먹어보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프라이팬에 눌구어서 누룽지를 만들어 저녁 늦게 굳것질 삼아 먹었는데 이가 아파 치과에 가니 딱딱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한다. 智慧第一 文殊舍利菩薩이시여 남은밥 처리의 지혜를 주옵소서!

홍순기

- 1968. 3. 11 ~ 1980. 2. 13 체신부

- 1980. 2. 14 ~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연수부

